

장수, 돼지열병·A 차단 만전

가금 및 양돈농가 63농가에 생석회 4.7톤 배부

장수군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장수군은 12일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가금 및 양돈사육 농가 63농가에 생석회 4.7톤을 배부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전염병이다. 병에

걸린 돼지는 고열(40.5~42℃)과 식욕부진, 기립불능, 구토, 피부 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보통 10일 이내에 폐사하며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무엇보다 차단이 중요하다.

이에 군은 야외에서 9개월이 지난 후에도 소독효과를 나타내는 등 장시간 소독효과가 지속되는 생석회를 농가에 배부했다.

또 생석회를 축사 주변과 진입로 등에 도포할 경우 기존 생석회를 제

거하지 말고 빈 공간이 없도록 충분히 도포하고 할 것이라 비닐 벽 등 가연성 물체와 일정 거리를 두고 도포해 화재 예방하고 방독면과 밀폐 안경을 착용 후 도포할 것을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가축질병은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축산업의 영위와 직결되는 만큼 축산 농가는 공급받은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해야 한다"며 "축사 내·외부 소독 및 외부인·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철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스마트한 농업도시 꿈꾼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중간보고회

진안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농촌의 비전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이항로 군수와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 위원, 관련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촌발전계획)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진안군 농촌발전계획은 (사)전북행정평가연구원(대표 최현호)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2019~2023년까지 5개년 발전계획안 수립과 추진

계획에 대한 최현호 대표의 발표와 농정심의회위원과 실과소장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보고자인 최현호 대표는 "스마트한 농업도시, 자연 속에 성장하는 진안을 농업발전 비전으로 잡고 활기찬 농촌경제, 아름다운 농촌경관, 모두가 행복한 복지, 함께하는 공동체 역량강화를 주요 목표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정심의회위원들은 진안군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우리나라의 농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에 부족함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질의하였으며, 실과소장들은 진안군의 향후 예산편성 방향과 일치하는지 등을 점검했다.



진안군은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이항로 군수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원, 관련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진안군은 농촌발전계획을 토대로 전북도와 중앙정부 등과 연계를 통해 국도비 확보방안 마련과 효율적인 사업실행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항로 군수는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안군 농업발전에 기본이 되고 국가예산 확보의 토대가 되는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전략이 담긴 충실한 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지적측량업무 역량강화 연찬회

진안군은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진안장수지사 직원과 군 지적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측량수행자·검사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선진 지적행정 구현

을 위해 부실측량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지난 4월 도 토지정보과에서 실시한 표본검사 결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공

정성 확보와 친절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병행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은 군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적측량수행자와 지속적 협력을 통해 감동을 주는 지적행정으로 신뢰받는 지적민원서비스 제공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체육인의 밤 행사가 지난 11일 무주예체문화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됐다.

무주군체육인의 밤 행사 성료

게이트볼협회 장학식 회원 등 17명 공로패

2018 무주군체육인의 밤 행사가 지난 11일 무주예체문화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됐다. 무주군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체육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화합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체육회 회장(무주군수)과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과 황의탁 도의원을 비롯한 내빈들과 각 종목별 임원 및 동호인 25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생활체육(에어로빅)로 막을 올린 무주군체육인의 밤은 결산보고와 시상 등 기념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무주군청 이미경 체육진흥 팀장과 무주군체육회 이 상용 이사가 무주군체육회에서 주는 감사패를 받았으며 게이트볼협회 장학식 회원과 축구협회 성준경 회원, 테니스협회 정영희 회원, 탁구협회 박창현 회원, 배드민턴

협회 국민진 회원, 태권도협회 장경수 감사, 족구협회 정정구 회원, 야구협회 임연배 회원, 그라운드골프협회 이경 회원, 수영연맹 이영심 회원, 골프협회 이은섭 회원, 당구연맹 장기년 회원, 패러글라이딩협회 이미애 회원, 민속경기협회 정순희 회원, 바이애슬론연맹 김경환 회원(철천 중·고 바이애슬론 코치), 생활체육협회 김현아 회원, 무주군체육회 류지원 수 영지도자가 공로패를 받았다.

그라운드골프협회 추선희 회원과 적상면체육회 정동준 회원은 무주군의회에서 주는 표창을 수상했다.

황인홍 회장은 "군에서는 24개 종목 3천여 명의 회원이 종목별 활동을 통해 활기를 불어 넣어주고 계신다"라며 "밝아오는 새해에도 무주가 더 건강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군, 주거급여 집중신청 홍보

장수군이 12월 한 달간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집중신청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주거급여 집중 신청 홍보 활동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난 10월에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 못한 대상자들의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거복지유관기관과 협력해 주거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12월 한 달간 현수막과 인문 매체 및 이장 등을 통해 집중신청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판단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 3000원) 이하인 가구다.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기준 202만 9956만원) 이하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다.

주거급여와 관련 신청 및 안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행복복지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통합재활프로그램 수료식

진안군은 건강과 자립능력 증진을 위한 뇌병변 및 지적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재활프로그램인 '건강은 하나뿐인 자산!' 프로그램 수료식을 12일 가졌다.

통합재활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자가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관리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올 8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총 18회 운영됐다.

보건소 내 통합서비스를 활용한 운동, 영양, 한방, 구강, 낙상예방, 우울·자살 등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재활사전·사후기능평가와 전문 인력을 통한 1:1 심층상담·작업치료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이날 수료식은 10회 이상 출석한 대상자들에게 수료증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화사도 착용으로 졸업식과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느낀 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촉진과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적·물적 지원을 최대한 개발·활용하여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자원순환 추진실적 최우수군 선정

영농폐기물·종이팩 수거 등 자원재활용 확대 부문 호평

무주군이 2018년 전북도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포상금 5백만 원)됐다.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는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고 깨끗한 전북만들기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무주군은 청결도 향상, 청소행정 효율성, 자원재활용 확대, 우수시책 발굴·추진 사항을 평가(4개 부문, 13개 항목)한 것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특히 영농폐기물과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수거 등 자원재활용 확대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소차량 디자인 개선 자체사

업 추진과 클린하우스 설치,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 폐농약기 수거 보상금 군비 추가 확보 등이 우수시책으로 주목을 받았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이형재 자원순환 담당은 "평소 아름답고 깨끗한 무주를 만든다는 일념으로 주민들과 한 마음이 돼 노력했던 것이 좋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 군으로서, 또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반딧불이의 고장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청소 분야 안전사고 예방, 분리수거 정착 등 지역현실에 맞는 자원순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애쓸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